DOI http://dx.doi.org/10.22143/HSS21.7.5.16

창의계층론의 국내 농촌마을 적용에 관한 탐색 연구: 함안군 강주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A Exploratory Study on the Theory of Creative Class to the Rural Economy: A Case Study of Gangju in Haman County

구 문 모*

접수일: 2016년 10월 1일, 수정일: 2016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20일

요약(Abstract): 이 연구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경남 함안군 강주마을을 중심으로 창의계층론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강주마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토론을 통해 마을의 특성과 성장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이 제시한 내용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에도 정규교육보다는 실무능력, 첨단기술보다는 창의적 발상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필요하지만, 관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민 자체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귀촌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어(Key Words): 귀농·귀촌(Urban-to-rural Migration), 창의계층론(Theory of Creative Class), 농촌경제(Rural Economy),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 한라대학교 경영사회대학(Email: ctindustry@naver.com)

Ⅰ. 서론

새마을 운동은 심화되어 온 도시와 농촌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수행한 지역개발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도시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된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도 진행되면서 농촌이 몰락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유입이 증가하면서 마을의 경제활동이나 새로운 공동체 활동으로 활로를 찾는 농촌 마을들도 나타나고 있다. 마상진·남기천(2015)의 연구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어떤 주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느냐가 변화의 속도와 질적 변화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어떻게 원활하게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도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이지만, 새로운 생산인력으로서 귀농·귀촌인들을 어떻게 유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귀농·귀촌의 동기와 과정에 관한 주제(신윤철·배성의·김동섭·윤준상, 1998; 강대구, 2007; 김성학·서정원, 2014), 귀농·귀촌에 따른 농촌 사회 적응에 관한 주제(김형용, 1998;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박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 송인하, 2013) 등이 대부분이고, 중요한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 후 경제활동에 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박시현·최용욱(2014)은 5개 소도시를 중심으로 농업 외 경제활동의 종류를 전직업과 연관하여 분석하였고, 김정섭(2014)은 농업, 농산물가공 및 관광, 기타 직종의 근로로 나누어 특징을 제시하였다. 마상진·남기천(2015)은 귀농·귀촌 과정특성이 정착 후 경제활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현대 농촌을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전략은 대체로 장소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이나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는 방법 그리고 창의성과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Morgan, Lambe, & Freyer, 2009). 이 가운데 창의성을 활용하는 발전전략은 Florida(2002)의 연구로부터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를 대변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는 특정 환경을 갖춘 도시는 창의계층인력을 유인하고, 다양성에 개방되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 환경을 3T(Talent, Technology, Tolerance)로 정의하고, 미국의 도시들을 분석한 결과 3T가 풍부한 도시일

수록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lorida, 2002; 2005). 그러나 그의 연구는 창의계층을 유인하여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실증적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Andersen et al., 2010; McGranahan & Wojan, 2007). 이에 대해 다른 학자들(Stolarick, Denstedt, Donald, & Spencer, 2010; Thelemark & Hauge, 2014) 등의 연구들은 지역발전의 요소로서 3T가 농촌과 도시간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한편 Florida(2002)의 창의계층인력(Creative Class)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비교적 초기에 단계에 있다. 예를 들면, 표준직업분류에 나타난 창의계층에 대한 통계적 측정과 분류에 관한 연구(김필수·오준범·이부형, 2013; 김영수, 2013; 황수경, 2013; 구문모·박정수, 2014), 창의계층 인력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이훈·오동훈, 2011; 이대창, 2013), 문화예술 창의인력의 고용효과 분석(구문모, 2015)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통계청 통계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가용 통계로 창의계층 인력의 측정과 추이를 통한 고용 분석과 이와 관련된 지역 발전 요소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그 상관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Florida가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창의계층론을 우리 농촌을 대상으로 최근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귀농·귀촌인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를 중심으로 3T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한 연구(김흥주·박기풍, 2010; 장재홍 외, 2014)는 여전히 희소하며, 특히 특정 마을과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예는 없다. 이 논문은 경남 함안군 법수면의 강주마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 귀촌인과 그가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II. 창의계층론

1. 등장배경과 개념

200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론에서 새롭게 제기된 논의는 경제성장의 주된 원천을 물리적 환경이나 자산보다 인적자본과 인간의 창의성이 지역과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인식이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론은 크게 두 가지 학문적 논의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산업과 기업의 집적화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사람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류이다(Marshall, 1919; Jacobs, 1969).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후자의 부류는 다시 Lucas(1988)와 Glaeser(1998) 등과 여기에서 언급할 Florida(2002)와 Peck(2005) 등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혁신을 가져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를 폈다면, 후자는 창의자본(Creative Capital) 또는 창의계층(Creative Class)을 많이 유치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혁신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1] 전자가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후자는 “실제로 하는 것”에 더 몰두하고 있어 후자가 지역발전의 논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Boschma & Fritsch, 2009: 393). 좀 더 부연하면 단순히 안다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인적자본의 한 부류인 창의계층인력은 창의적 직업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그 직종에서 비롯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의계층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경제활동의 가치창출이 점차 무형의 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이유가 과거로부터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풍부한 에너지자원의 확보나 우수한 유통환경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이는 무형의 자산을 가진 재능이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따라서 이들이 정주하는 곳은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전략적인 자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지역이나 국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시와 지역에 집중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선호하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거나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Florida(2002)는 창의계층인력을 자율성과 유동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부류의 직종 인력으로 이해하고, 이를 핵심 창의계층 인력과 창의적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핵심 창의계층 직종 인력은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연예인, 배우, 디자이너, 건축가 등이며, 창의적 전문가는 첨단기술업종, 금융서비스, 법률과 보건의료, 경영 분야 등에 종사하는 주로 지식서비스 분야의 직종 인력을 말한다.

---

1) 인적자본론이 학력이나 학위 등을 기초로 하는 반면, Florida의 이론은 학위보다는 개인의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는 가령, 전형적인 창의계층인력인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창의적 활동은 정규 교육보다는 고도의 창의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Boschma & Fritsch, 2009: 393-394).

2. 창의계층론과 경제발전

Florida의 경제발전론은 일명 “창의자본모형(Creative Capital Model)”로 칭하는데, 그는 도시발전의 변수들 즉, 재능(Talent), 관용(Tolerance), 기술(Technology) 등을 창의성 지수[2])로 개념화하였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왜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더 정주하는 성향이 높은가를 연구했고, 따라서 기업들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Florida는 장소 그 자체의 특성에 주목했다. 어떠한 장소가 창의인력에 매력적인가를 설명하는 요소가 3T이다. 첫째 기술과 경제발전과의 연관성은 Schumpeter(1962; 1982)의 연구 이래로 충분히 검증되어 왔다. Florida는 기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기술 또는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창의인력에 더 초점을 두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인력이 많이 분포된 지역일수록 혁신활동이 많고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고, 따라서 지역의 발전은 창의인력과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리차드플로리다, 2011: 386-387). 창의적 활동은 서로 다른 기술과 아이디어가 만날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다양성을 보다 많이 허용할수록 서로 다른 유형의 창의인력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더 높은 혁신과 첨단산업이 형성되고 더불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나은 재능과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애미와 뉴올리안즈 등은 훌륭한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도시들이지만, 적합한 기술력을 축적하지 못해 경제성장의 선두지역이 되지 못했다(Florida, 2002: 8).

둘째, 그는 지역의 경제발전이 다양하고 관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지역을 선호하는 창의인력에 의해 촉진된다고 하였다. 제인 제이콥스가 오래 전에 혁신과 도시발전이 회사와 사람의 다양성을 강조했다면, Florida는 사람의 다양성,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외부 사람들에게 낮은 진입장벽을 허용하느냐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하였다(리차드플로리다, 2011: 384-385). 가령, 그는 미국의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등의 대도시들이 기술과 세계적으로 저명한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의계층인력을 확보할만한 개방과 관용의 사회분위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주장하였다(Florida, 2002: 8).

2) Florida(2002)는 도시의 창의성 지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재능은 학위 소지자와 창의계층인력의 비율을 기술은 지역 내 특허의 수와 첨단산업의 비중 그리고 관용은 게이(Gay) 지수, 보헤미안 지수, 외국태생 인구 수 등을 사용하였다.

3. 창의계층론과 농촌의 경제발전

Florida의 창의계층론이 제시하는 두 가지 핵심 논제는 창의계층인력이 지역 경제발전의 주된 원천이라는 점과 장소의 질이 우수한 대도시 지역에 그 인력들이 위치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창의계층인력의 대도시 선호는 이 지역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다양성을 갖춘 분위기, 풍부한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사회문화 환경과 다양한 인프라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루려는 농촌을 대상으로 창의계층론을 적용할 때 농촌은 자연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젊은 층의 유실 등으로 창의계층인력이 정주하는데 대도시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이에 대해 McGranahan & Wojan(2007)은 농촌의 우수한 환경도 창의계층인력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Deller, Marcouiller, & English(2001)도 도시민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방된 공간과 자연 어메니티, 작은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등이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더욱이 농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도시보다 우수한 여가환경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Floirda가 주장하는 창의계층인력이 최적의 선호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McGranahan & Wojan(2007)은 미국 농촌이 갖고 있는 정서적 안정감과 진정성(Authenticity) 등의 정주환경은 비경제적인 면에서 도시의 창의계층인력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현대사회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지리적인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잘 갖춰져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환경이 잘 구비된 농촌은 반드시 도시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동성이 높은 창의계층인력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유연하게 활동하게 하는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어메니티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농촌의 현대적 경제발전 전략은 대체로 장소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 창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략 그리고 지역의 창의성과 재능을 배양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략 등 세 가지 안에서 이루어진다(Morgan, Lambe, & Freyer, 2009). 첫째 장소 기반 전략은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전통, 지역의 자연자원이 제공하는 어메니티 등을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대체로 이러한 전략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뿐더러, 여가적인 체험과 휴양적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나 기타 외지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Hopkins, 1998; Marsden,

1999). 이와 같은 지역의 자원들은 단순히 관광적 유용성 외에도 삶의 질에 민감한 지식기반 인력이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zaku & Bukenya, 2005; Salvensen & Renski, 2002). 둘째, 창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략은 최근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지원수단은 각종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물리적 인프라 또는 인적 자본 제공, 네트워킹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기업가와 신생기업 등이 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대도시에서 성장한 대형기업들과는 달리 농촌에서 탄생한 기업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지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과 더불어 지역의 다른 업체들과 경제 및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Tolbert et al., 2002). 지역에서의 창업가적 활동은 종종 장소 기반 전략과 동반 발전하는 경향을 갖는데,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자산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외부 업체들보다는 지역 업체들이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 빈약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혁신 자원을 배양해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근로자의 풀(Pool)을 확보하고,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기량(Skill)을 훈련을 제공하면서 리더쉽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지역에 우수한 여가 및 문화환경 조성 등 정주어메니티를 개선함으로써 창의계층인력을 유치해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Florida의 창의계층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의 이론은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특허나 첨단지식 또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창의계층집단을 기초로 하였다. 이에 비해 농촌에 관심을 둔 창의계층론의 후발 연구자들은 농촌 사회에서 발굴하거나 배양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우면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창의계층인력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농촌 마을 중 New York Mills, Colquitt, Helena 등은 외부로부터 정주할 수 있는 예술가를 받아들여서 창의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민들이 연극이나 문화축제 등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농촌에 투자 유인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고되었다(Morgan, Lambe, & Freyer, 2009: 7-9).

III. 국내 사례 분석: 경남 함안군 강주마을을 중심으로

Florida의 창의계층인력 이론을 농촌에 적용한 해외 사례들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점차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귀농·귀촌인의 창의적 활동보다는 현대

농촌사회와 6차산업을 연결한 산업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조사 자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2014, 2015)로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우리나라 귀농·귀촌인들이 과연 우리 농촌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질적 분석으로 하나의 실제 사례를 3T의 관점에서 관찰함으로써 Florida의 창의계층론이 우리 농촌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해본다. 관광지로서 농촌 사례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함안군의 강주마을 사례는 단순한 관광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창의적인 활동들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장소의 어메니티가 외부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3].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를 위해 1차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 2차의 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해바라기 축제를 중심으로 그간 진화되어 온 강주마을 활성화 과정과 정주환경에 대해 기획집행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3T와 관련한 5개의 주관식 설문항을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1차로 수집된 자료 내용의 검증을 위해 2016년 7월 축제가 열렸던 기간 중 이틀간 함안 강주마을을 방문하여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은 1차로 함안군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 축제 행사 진행자, 축제 지원단장 등과 축제 관리 현황 및 성과를 2차로는 이주민을 포함하여 강주마을 주민 4-5명과 이주동기, 해바라기 축제 개최의 동기 및 만족도, 생산 및 판매 활동의 특성, 귀촌인들에 대한 집성촌 주민의 반응 등을 밀착 취재하였다. 개별면담은 2차에 걸쳐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및 구매 활동, 방문 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강주마을이 속한 법수면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9개의 리와 23개의 마을 등으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함안군의 지형과 지세는 북쪽에 남강과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다수의 댐이 구축되어 우수한 경관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수원으로 토지가 비옥하여 영농에 적합하다. 함안군 내부에 남해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전선 철도 등이 통과하고 있고, 김해공항도 인접해 있어 주변의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우수하여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1시간 30분 거리이다. 법수면은 도시 근교농업 지역이면서 2천 여 중소업체가 있는 통합창원시의 배후도시로서 지리와 교통 편의상 장점을 갖고 있어 이 지역주

3) 함안군 강주마을은 2015년도 지역발전위원회가 발굴한 지역발전 우수 사례 중 핵심 창의인력으로서 귀촌인이 창의적 역량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어 연구 사례로 선정되었다.

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함안군의 전체 인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줄어들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함안군은 2012년부터 인구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군내 가야읍과 칠원읍, 법수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함안군 전체를 볼 때 인구유입의 주된 원인은 함안군에 유입되는 기업체 수가 증가한 것도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위치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칠원읍과 가야읍에 조성된 주거단지에 정착하게 된 것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산물로는 참외·수박·방울토마토 등이 재배되고, 관내에 7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법수면은 여타 읍, 면에 비해 창원시에 비해 떨어져 있고 주택단지가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출처: 함안군 홈페이지

<그림 1> 법수면의 행정구역

<표 1> 함안군 인구 추이 및 분포

단위: 명

	전입인구	전출인구	순유입
2010	8977	8979	-2
2011	8434	8570	-136
2012	8382	7840	542
2013	7623	7336	287
2014	9079	7932	1147
가야읍	2191	1976	215
칠원읍	3282	2188	1094
함안면	279	334	-55
군북면	710	787	-77
법수면	586	470	116
대산면	427	447	-20
칠서면	802	928	-126
칠북면	224	224	0
산인면	456	470	-14
여항면	122	108	14

출처: 함안군 홈페이지

1. 재능(Talent)

Florida는 개인의 창의적 역량으로 재능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여기서 재능은 창의인력의 교육 수준 또는 직업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농촌사회는 도시와는 달리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인적 자본, 예를 들면 핵심 창의계층인력으로서 문화와 예술 계통의 직업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더 높다. 앞서 언급

했던 미국 농촌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농촌들도 외부의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예술활동을 하면서 지역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사사키 마사유키·가와이다 사치코·하기하라 마사야, 2014).

강주마을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유덕재 축제기획위원장의 전직은 핵심 창조직업군에 속하는 전문 사진예술가이다. 그는 자신을 “모방보다는 창의적 발상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계의 풍토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야 하는” 창의인력이라고 이해하였다. 정착 초기에 그가 인식한 강주마을의 어려움은 타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공공장이 생기면서 분진과 소음이 마을 오염되어 있었고, 문 닫은 공장에서 내놓은 환경폐기물까지 더해져, 심각한 공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유덕재 위원장은 고령화된 마을 주민이 고장의 1차 농산물인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등 재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과 함께 숙고하면서 해바라기 단지 조성, 마을 벽화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이뤄냈고, 함안 해바라기축제를 기획하였다. 유위원장의 기획 초기에는 고령으로 인한 여력 부재, 바쁜 농사일 등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여 국내에서 마을재생사업으로 성공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다. 이는 현장체험을 통해 얻은 주민들의 지식과 의식 변화가 마을을 창의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유덕재 위원장과 주민들의 해바라기 재배에 대한 학습도 시작되었다. 그는 자비를 들여 좋은 종자를 찾기 위해 북유럽 5개국의 해바라기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해바라기가 오염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돈보다는 자기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보람을 추구하는 창의계층인력의 전형을 보여준다(Florida, 2005). 마을의 벽화 만들기 활동도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해바라기 문패 만들기와 스토리가 있는 벽화만들기 등 마을 경관 개선 작업은 유위원장의 인적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와 여러 봉사단체의 일손에 힘입어 해바라기 축제와 어울리는 문화예술의 쉼터로 탈바꿈되었다. 대도시의 창의인력이 정규교육을 통한 전문지식과 고학력 등이 요구된다면 강주마을 주민들의 창의적 역량은 축제 서비스 관리 및 해바라기 재배, 관련 가공품 생산 등 현장실무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Thulemark & Hauge, 2014: 94-95).

2. 기술(Technology)

지역의 경제발전 역량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혁신에 의존한다는 것이 Florida의 논리

이다. 하지만, 농촌은 대도시처럼 첨단기술 관련 산업 인프라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달성하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기술 개발이나 혁신역량은 대도시와는 매우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의 대표사례로 캐나다의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대도시에서 PEC로 귀촌인이 과거에 없었던 포도재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소규모 업체들은 포도농장, 포도주생산과 음식과 관련한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경제활성화에 성공하였다(Stolarick et al., 2010). 스웨덴의 평범한 산촌 마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스키와 관련된 레저시설 운영업체들이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북유럽 최대의 겨울철 관광지로 변모하는 데 성공하였다(Thulemark & Hauge, 2014).

법수면 강주리 마을은 75가구 140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 중 70% 이상이 농사일을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그렇다고 떠오르는 선명한 이미지도 없고, 여름의 피서여행지나 볼거리와 먹거리로 유명한 산지도 아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네 번째로 해바라기 축제에 열리고 있고, 작년에는 약 7만 여 명이 방문하는 관람지로 바뀌었다. 관람객들은 대부분 인근의 창원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진해, 김해 등에서 방문한다. 축제 기간에는 산지 특산물이 판매되는 효과도 누리고 있고, 1차생산물인 해바라기씨 판매 외에도 2차 가공품인 해바라기 종자를 활용한 기름, 막걸리, 비누, 에너지 바 등도 생산 및 판매되어 2013년에는 약 5천만원, 2014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소득증대 효과도 가져왔다(지역발전위원회 외, 2015: 228). 이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치즈 만들기 체험활동, 꽃상여와 같은 전통문화 재연 등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차 가공품들은 영농조합법인이 창립되면서부터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어지게 되었다.

쇠락해가던 강주리 마을이 지금처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는데 필요한 역량은 버려진 농토를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주민들의 열린 사고가 큰 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국내의 다른 해바라기 축제와는 달리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종자 발굴, 단순한 축제개최를 통한 방문객 초청 외에 얻을 수 있는 가공품 개발 노력과 같은 지도자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지역발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중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3. 관용(Tolerance)

Florida(2002)는 정착지가 외지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커뮤니티는

창의계층인력의 유입이 이뤄지기 쉽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Florida는 통계적으로 지역에 정착한 보헤미안의 수로서 관용을 측정하지만, 이를 우리 농촌에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강주마을은 함안조씨의 집성촌이 정체성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에 대한 관용을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유덕재 위원장은 서울에서 활동했던 전형적인 대도시 귀촌인으로 이 지역이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지인이기 때문에 마을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설득의 어려움을 겪었다(지역발전위원회 외, 2015: 230). 그는 “집성촌 특성 상 곁을 내주지 않는 농촌의 습성이 많은 어려움을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귀촌인으로서 그러한 점에 낙담하기 보다는 그 실마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만큼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지역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이 먼저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용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주민들과의 면담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나는 우리 위원장이 좋아요. 우리 마을 예쁘게 잘 살게 해주고, 우리 돈도 벌어 형편도 펴게 해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소?”(지역발전위원회 외, 2015: 237) 유 위원장은 정착 초기에 고령층으로는 정돈하기 어려운 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봉사는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국의 마을재생사업 선진지 견학을 주선하였다. 유 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의 기관이나 인적 네트워크의 협조를 얻어 벽화작업을 수행하였고, 소득 창출에 필요한 해바라기 우수 종자 발굴을 위해 자비로 유럽 출장을 다녔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유 위원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해바라기 박사라고 불러주는 덕분에 비공식 해바라기 박사학위도 취득했다”며 강주마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지역발전위원회 외 2015, 237). 그는 마을주민의 관계구축을 위해서는 “농촌 정서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와 함께 한걸음 더 지역민에게 스스로 다가서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지역발전에 관한 Florida의 창의계층이론을 함안군의 강주마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탐색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로 볼 때 강주마을이 있는 법수면은 함안군에서 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면으로는 유일하게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은 통계적으로 다시 분석해야 되겠지만, 새로 정착한

거주민의 면담은 "창원시에 직장을 갖고 있는데, 해바라기 축제로 강주마을을 듣게 되었고, 보다 목가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이사했다"고 하여 장소의 어메니티가 인구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강주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첨단기술 관련 산업이 아닌 문화관광 축제이지만, 해바라기 재배와 관련된 신지식의 습득능력과 기량(Skill), 그리고 축제행사를 운영하는 관리 능력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제를 통한 관람객 유치와 소득창출 및 일자리 만들기 등의 경제적 활동은 타 지역과 구별되는 창의적 발상과 소득원을 개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지역구성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등이 농촌마을에 필요한 동력원이 되었다. Florida는 지역의 관용이 창의계층인력을 유치를 촉진한다고 하지만, 혈연 집성촌의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농촌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을구성원으로서 적응하려는 귀촌인의 우선적인 노력이 주민의 관용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지역발전 요소로서 Florida의 3T와 강주마을의 3T 비교

	Florida의 이론	함안 농촌의 사례
재능(Talent)	학력(인적자본) 창의직종인력	정규교육보다는 현장실무능력 고객 서비스관리능력
기술(Technology)	첨단기술과 혁신	기업가적 지향성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발상
관용(Tolerance)	개방성 다양성	지역공동체에의 적극적 참여 외부와의 협력 의지

창의계층론은 최근 들어서 많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Florida의 이론은 농촌보다는 대도시에 적합하기 때문에 농촌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함안군의 강주마을 예에서 나타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정착지 주민의 관용 수준이 물론 귀촌인에게 정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는 귀촌인 자신이 우선 지역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다가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Florida이론은 지역에 얼마나 창의직종인력과 지식인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다른 직종인력들이라 하더라도 창조계층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창의계층인력의 수보다도 기존 인력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리처드플로리다, 2002: 142). 함안군 강주마을의 경우에도 귀촌인으로 한 지도자의 창의적 발상과 이를 통해 습득한 지역주

민의 동참이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동력이 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Florida의 이론을 특정한 우리 농촌마을에 적용할 때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지만, 그의 핵심 논제인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물리적 인프라보다 창의성과 장소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농촌의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 농촌의 극히 한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농촌 마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참고문헌】

강대구(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구문모(2015),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 창의인력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8(3): 49-79.

구문모·박정수(2014),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과 지역발전정책의 함의”, 『지방행정연구』, 28(1): 115-138.

김필수·오준범·이부형(2013), “창조직업의 고용확대가 창조경제의 관건이다!”, 『VIP Report』,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김성학·서정원(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농촌계획』, 20(1): 105-113.

김영수(2013), “창의계층의 산업별 지역별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서울: 산업연구원.

김정섭(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 『농촌지도와 개발』, 21(3): 53-89.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김한종(2015),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 현황과 시사점”, 『NH농협조사월보』, 8, 서울: NH농협.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김흥주·박기풍(2010), “도시의 창조적 계급·기술·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5(1): 251-264.

리차드플로리다(2011), 『신창조계급』, 서울: 북콘서트.

마상진·남기천(2015), 『귀농 · 귀촌인의 경제활동 유형별 관련 요인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윤지·최용욱·남기천(2014),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공주·윤순덕·강경하(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박공주·김양희·박정윤(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박시현·최용옥(2014),『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사키 마사유키·가와이다 사치코·하기하라 마사야, 한국농촌건축학회 옮김(2014),『창조농촌을 디자인하라』, 서울: 미세움.

송인하(2013), “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용에 관한 연구: 경제목적 귀농인과의 비교”,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윤철·배성의·김동섭·윤준상(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6: 59-70.

이대창(2013), “창조직업과 지역발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고용과 직업연구』, 7(1),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이훈·오동훈(2011), “플로리다 창조계급론의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임금구조를 중심으로”,『부동산학연구』, 17(3): 121-134.

장재홍·송하율·김홍석·허문구·김찬준·변창욱(2014),『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715.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15),『우리가 꿈꾸는 지역행복 이야기21: 2015지역발전사업우수사례』, 서울: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통계청 홈페이지. 귀농·귀촌인 통계, <www.kostat.go.kr>.

함안군청 홈페이지(2015),『함안군 통계연보』. <www.haman.go.kr>.

황수경(2014), “창의고용의 조작적 정의와 창의적 노동의 임금효과”,『한국경제연구』, 32(2): 37-68.

Andersen, V. K., Bugge, M., Hansen, K. H., Isaksen, A., & M. Raunio(2010), “One Size Fits All? Applying the Creative Class Thesis onto a Nordic Context”,『European Planning Studies』, 18(10): 1591-1609.

Boschma, R. & M. Fritsch(2009),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Seven European Countries”,『Economic Geography』, 85(4): 391-423.

Deller, S. C., Tsai, T.-H., Marcouiller, D. W., & D. B. English(2001), “The role of amenities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economic growth”,『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3(2): 352-365.

Florida, R.(2002),『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Florida, R.(2005),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 The New Global Competition for Talent』,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Glaeser, E.(1998), "Are cities dy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2: 139-160.

Hopkins, J.(1988), "Signs of the Post-Rural: Marketing Myths of a Symbolic Countryside", 『Geografiska Annaler』, 80(2): 65-81.

Jacobs, J.(1969), 『The Economics of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Lucas, R.(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3-42.

Marsden, T.(1999), "Rural Futures: The Consumption Countryside and its Regulation", 『Sociologia Rualis』, 39(4): 501-520.

McGranahan D. & T. Wojan(2007), "Recasting the Creative Class to Examine Growth Processes in Rural and Urban Countries", 『Regional Studies』, 41(2): 197-216.

Morgan, J. Q., Lambe, W., & A. Freyer(2009), "Homegrown Responses to Economic Uncertainty in Rural America", 『Rural Realities』, 3(2): 1-15.

Marshall, A.(1919), 『Industry and Trade』, London: Macmillan.

Nzaku, K. & J. O. Bukenya(2005),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men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utheast USA", 『Review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17: 89-103.

Peck, J.(2005),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740-770.

Salvensen, D. & H. Renski(2002), 『The Importance of Quality of Life in the Location Decisions of New Economy Firms』, Washington. DC: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Schumpeter, J.(196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Perennial.

Schumpeter, J.(1982),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Somerset, NJ: Transaction.

Stolarick, Denstedt, Donald & Spencer(2010), "Creativity,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 Rural Context: the case of Prince Edward County",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5(1): 238-254.

Thulemark & Hauge(2014), “Creativity in the recreational industry, Re-conceptualization of the Creative Class theory in a tourism-dominated rural area”,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8(1): 87-105.

Thulemark, M. & A. Hauge(2014), “Creativity in the recreational industry, Re-conceptualization of the Creative Class theory in a tourism-dominated rural area”,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8(1): 87-105.

Tolbert, C. M. et al.(2002), “Civic Community in Small-Town America: How Civic Welfare is Influenced by Local Capitalism and Civic Engagement”, 『Rural Sociology』, 67(1): 90-113.

A Exploratory Study on the Theory of Creative Class to the Rural Economy: A Case Study of Gangju in Haman County

Goo, Moon Mo*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ynamics of development in a small rural region, where Gangju in Haman is a typical village, with the aging of population and amenities. This study consists of the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analysis of direct interviews and a survey to investigate 3 T(Talent, Technology, Tolerance) of an essential point with the theory of Creative Class around the situation of Gangju.

The paper shows to re-conceptualise the theory to determine how it can be used to understand development in Korean rural communities, even if the experiences on this case follows the core of the theory. However this case study might be not applicable to others, because community vitalization is different since the activities of creative class of urban-to-rural migration in each community are various.

Key Words: Urban-to-rural Migration, Theory of Creative Class, Rural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 Hall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ociology(Email: ctindustry@naver.com)